

액 정

박 서 연

10월 1일 수요일 저녁에 야식을 먹고 싶어서 마트에 갔다. 마트에서 라면, 과자 등을 사고 집으로 가려는데 마트 앞 돌에 걸려 넘어졌다.

내 무릎을 보니 피가 났다. 그리고 넘어지면서 세게 떨어진 핸드폰이 심하게 깨졌다. 일단 액정이 깨진 걸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집에 도착했다.

무릎에 밴드를 붙이고 필름을 뗐는데 다행히 액정만 깨진 거여서 필름 붙이고 유튜브를 보면서 야식을 먹었다. 씻고 잤다.